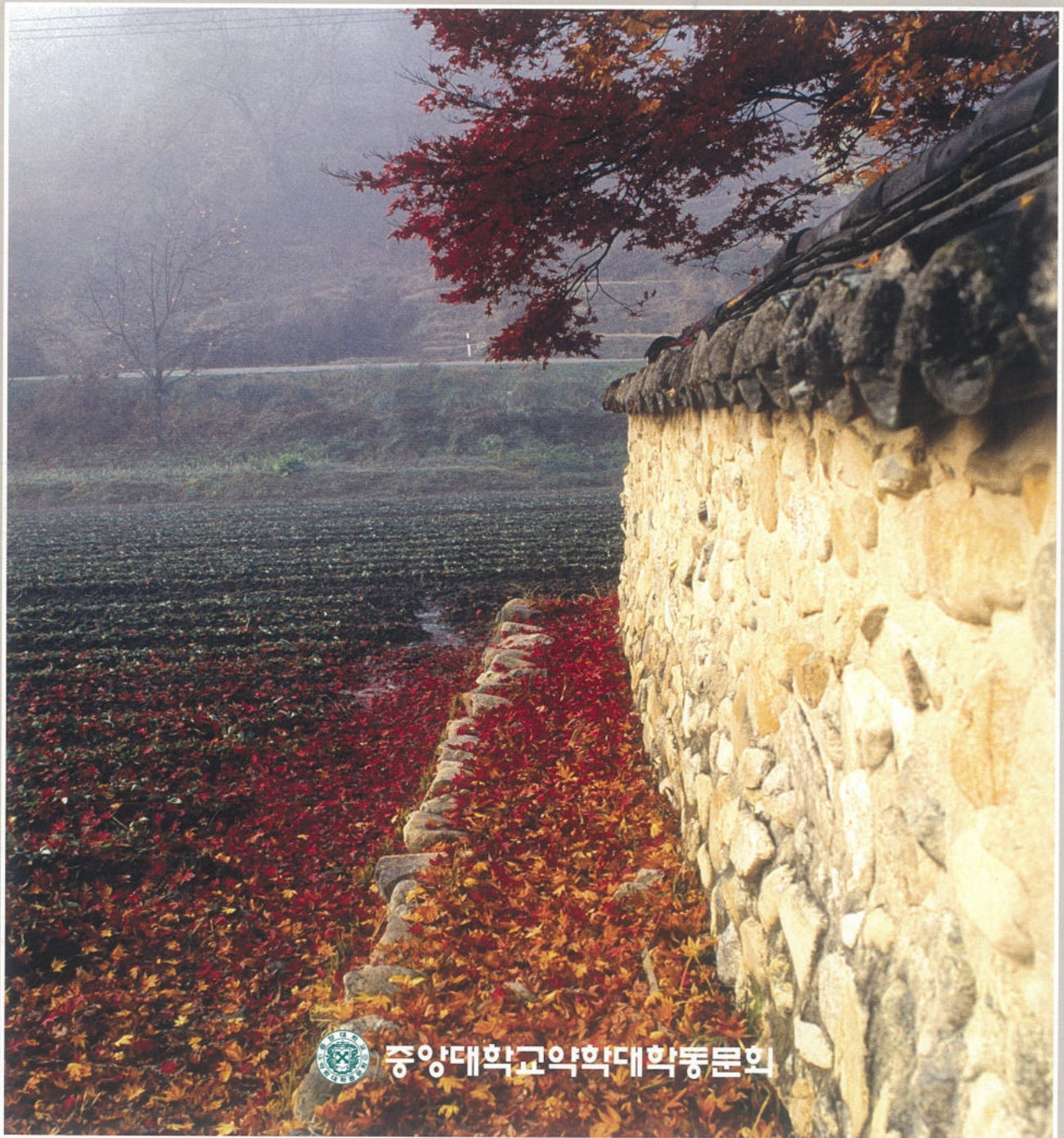


# 中央藥大 同門會報

가을

2003년 제14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가을  
2003년 제14호

# CONTENTS



3. 시 론  
위대한 약사
4. 프로필  
대한약사회장 후보  
시·도지부장 출마 예상 동문후보
7. 동기별소식  
18회/가을, 가슴을 열고...
8. 동문회소식  
회장단 회의  
특별위원회  
2003년도 초도이사회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33회 모교의날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17. 여동문회소식  
약국도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8. 별난동문이야기  
의약협업, 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1. 회원동정
22. 모교, 총동창회 소식
23. 만평  
합격!! 후보자 자격 심사
24.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 내역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장학금 수여식
27. 편집후기





# 대한약사회장 후보



문재빈(13회)

## 존경받는 약사, 강력한 약사회

- 1946년 1월2일(음력) 출생

### <학 력>

- 1959 부산 경남중학교 입학
- 1964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65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 199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로 정책과정 수료
- 1997 영국 맨체스터대학 보건대학원 보건의로 정책과정 수료
- 2003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사회약학전공) 졸업  
(석사학위논문 : 의약분업 정책실패론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약사회 경력>

- 1978 영등포구약사회 개국약사위원장
- 1988 관악구약사회장
- 1993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 1996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 1998 서울시약사회 회장
- 現 대한약사회 부회장

### <정책추진 경력>

- 1993 1차 한약파동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
- 1995 2차 한약파동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
- 1998 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 약사회 대표
- 1999 의약정협의회 약사회 대표단장
- 2000 의약분업원칙 고수를 위한 약권투쟁위원회 위원장

“必勝”





# “할말은 하는 약사회 구축”

## 문재빈 대한약사회장 후보 선거 출정식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1일 상제리제에서 열린 약사회장 선거 출정식에서 문재빈회장은 반드시 당선, 약사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업권의 자존심을 찾아내겠다며 후보출마를 선포했다.

문재빈동문은 출마의 변을 통해 “분업이후 경업압박과 잦은 약사감시로 약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약국가를 살릴 공약을 제시하겠다”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협상할 때 협상하고 투쟁할 때 투쟁하는 할말은 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업권의 자존심을 찾아 존경받는 약사상과 강한 약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를위해 회장이 되면 가장 빠른 시일내 5만약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 약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민관식 약사회 명예회장과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최병호, 노숙희, 지성배, 선우영환, 문상돈 지부장 등 약업계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선거대책 본부 고문 : 김명섭, 임상묵

◆ 선거대책 위원장 : 유영후

◆ 선거대책 본부장 : 권태섭(대외), 이호섭(대내)

◆ 부 본 부 장 : 서국진

◆ 분 과 위 원

- 정책기획 : 김종렬, 양만기
- 홍 보 : 김기명, 진희역
- 사 이 버 : 이호선, 김영식
- 수 행 : 김승태, 조찬희, 신상직, 유영내
- 대외협력 : 김경오, 박상용
- 여 약 사 : 강옥희, 박찬희, 김미담, 이경옥, 강희윤, 김영희, 양덕숙
- 섭 외 : 김종성, 서국진, 최창엽, 안병식, 김승태, 김승재
- 법 제 : 황공용
- 대 변 인 : 박계환

◆ 고 문 : 김순일, 김기홍, 장 례,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임완호

◆ 자문위원장 : 임상묵

◆ 자문위원 : 홍홍만, 고두훈, 이문규, 서화택, 김석자, 천홍기, 김상오, 박영규, 최길영, 홍병석, 신정숙, 김영일, 정재일, 한석원, 윤주섭, 조의환, 김연희, 박찬수, 이규진, 권혁구, 김의섭, 이대윤, 유정사, 박호일, 김창중, 최옥출, 황공용, 이호섭, 노덕재, 노석준, 최병호, 김상철, 지성배, 장재인, 선우영환, 유태일



# 시·도지부장 출마예상 동문후보

## 서울시지부 후보



정명진 (18회)

- 서대문구약사회 회장(4대 연임)
-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 회장
- 중앙약대 총동문회 부회장
- 중앙약대 19회 동기회장
- 서대문구청 보건특별위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서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

## 경기도지부 후보



김현태 (2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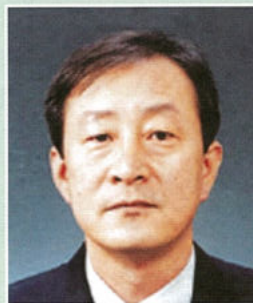
- 수원시약사회 회장
- 대한약사회 이사
- 중앙약대 총동문회 부회장



이세진 (21회)

-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25대, 26대)
- 경기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역임
- 수원시약사회 부회장 역임

## 인천시지부 후보



홍성철 (14회)

- 부평구약사회 회장
- 부평문화원 자문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 자문위원

## 대전시지부 후보



홍종오 (21회)

- 대전 '중구포럼' 이사
- 대전동구 약사회장 역임
- 대전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역임





# 가을, 가슴을 열고...

전 광 우 (18회)

촉촉이 젖은 가을비 짜즈의 흐느끼는 선율, 그리고 따스한 커피 한잔. 이런 날엔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린시절 기억했던 영화감독, 여배우의 이름, 영화의 장면을 회상한다. 특히 개성이 강렬했던 조연급 명배우들을 기억하는건 더욱 즐겁다. 로렌스 올리비에, 어네스트 보그나인, 딘 마틴, 제임스 가너, 제임스 코반, 안소니 퀘일, 스텐우드 그랜더, 스티븐 보이드, 멜 화라 등... 지금 30년이 훌쩍넘은 그 아련했던 먼지쌓인 파이프홀 창 넘어 어둠이 깔린 도서실 계단의 눈이 부시도록 뿌연 가을 햇살이 그리워 지는건 왜일일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8회 동창생 수신으로 전광우군이 보낸 글에서 분명 주연을 빛낸 조연의 명연기를 생각게 하는 그런 순수한 진실을 물어 나왔다.

여기에 가슴 적시기에 충분한 그의 글을 소개 하고자 한다.



최수영 정명진 최한규 강응모  
이원영 조중형 임종진 김기영  
이복숙 전춘이 박광숙 여운숙  
고혜옥 오윤숙 전광우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첨들어가는 가을향기 그윽한 교정을 생각하며 추억의 그림자 밟으며 그 리움의 낙서를 할수 있고, 그런저런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3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얼굴 한번 뵈지도 못했던 벗들을 이제야 무슨 망령이냐고? 그 망령을 현실화 하자고 이리저리...

그러나 번치않는 것이 있다면 중앙약대라는 디딤돌을 밟으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생활사 회노

애락이 많았겠지만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상호간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동기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동기회의 모습은 타 동기회와 비교하면 단결하고 화합하는 화목한 모습이 미약하지 않거나 생각됩니다.

나부터 반성합니다!!

본인이 공식시절에 동기생들의 반함에 소홀치 않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텐데...

허나, 지금 포 이가을을 넘기면 나이 한살 더먹고 영원한 이산동기생이 되어 지나가 소식이나 소식처럼 듣는 가슴이 뜬말이 생길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여러분의 이름다운 마음의 문턱을 노크합니다.

대기만성!

늘게타는 자작불의 화력이 새듯이 일단 한번 집합하여 상호간의 고견을 청취하고 정담을 나누며 우리18회 동기생들의 모임의 저력을 대내외에 감히 공포하는 날로 합시다!!!





## 회장단회의

▶일 시 : 2003년 9월 19일(화)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목, 조의환, 권혁구, 이규진, 박호일, 황공용, 박찬희, 이호섭,  
서국진, 정명진, 김현태, 정찬현, 최광훈, 김승재

〈안 건〉

1. 이사회의 개최의 건 : 2003년 9월 27일 서교호텔 본관(그랜드볼룸)
2. 모교의 날 '체육대회' : 시·도지부에서 많은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로 준비한다. 여동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며, 홈커밍데이는 명랑운동회가 끝난후 운동장에서 뒤풀이겸 바비큐파티로 한다. 모든 행사는 6시 전에 마친다.
3. 대한약사회장 선거 : 대한약사회장 후보 간담회(이규진, 김구, 문재빈),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동문 단일화 후보를 만들 것에 최선을 다한다.

## 특별위원회

▶일시 : 2003년 9월 24일(수요일) 현풍 할매곰탕집

▶안건 : 대한약사회장 단일후보 추천의 건

1. 중앙인으로서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적합한 동문을 추대하기로 한다.
2. 김구, 문재빈 동문의 의견을 듣고, 그 외에도 후보자로 적합한 동문이 있으면 추천하여 동문회장에 건의한다.
3. 동문회 임상목 회장이 특별위원회 의결안인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문재빈 동문을 추대하여 발표함.





# 2003년도 초도이사회

일시 : 2003년 9월 27일(토요일) 장소 : 서교호텔 본관 그랜드볼룸

지난 9월 27일 서교호텔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 14대 임상묵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결성된 이래 초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 결산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의 향후 사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로, 첫 모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서신 한가지에만 의존하던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재차 연락을 했음은 물론 회장, 총무, 그리고 동문회 사무실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는 입체적인 방법이 시도가 되었다.

임상묵 회장(8회)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동문회 발전이 꾸준히 이어져 미주지역 포함 41개 지부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김광식 동문(30회) 등의 주도로 용인지부가 새롭게 결성되어 총 42개 지부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는데, 특히 용인지부는 원로 몇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젊은 후배들로 구성되어 동문회 향후 발전가능성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문회 활동의 주요한 근간이 되어온 장학기금 운용이 최근의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기금운용에 부심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10월 10일 전후로 이어질 개교 50주년 행사에 동문들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새로운 모델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동문회의 핫이슈였던 대약회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 속에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굳이 감추지 않았으며, 고문, 회장단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며 난산 끝에 추대형식으로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13회)을 후보로 단일화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전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재삼재사 당부했다.

모교 최영욱 학장(24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대발전기금 조성의 의의와 향후 약대발전 청사진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며 동문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했으며, 10월 8일 오후부터 개최되는 학술심포지엄에 이어 이번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기념식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





# 雄飛하는 中藥人의 꿈, 제 2의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일시 : 2003년 10월 8일(수요일) ▲장소 :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전통의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강산이 서너 번도 더 바뀌었을 시간, 약학 관 신축을 정점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고 있는 약대발전기금모금이 탄력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한 과거를 뼈아픈 자성과 함께 되돌아보고 보다 영광스런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초석으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리라.

10월 8일 '약사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학계, 관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5인의 국내외 저명 연자들의 심포지엄을 필두로, 10월 9일에는 '21세기 생명의학연구의 패러다임과 현대 약학의 진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10월 8일 저녁에는 내외 귀빈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개교 50주년을 결산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 발간식을 겸한 기념식이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개최가 되었고, 10월 12일 각 지부 동문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홈커밍데이를 끝으로 제 2의 도약을 염원하는 일련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개교 50주년 기념식 열정과 도약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

오후부터 시작된 심포지엄의 열기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채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장의

로 내외 귀빈과 동문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다. 화려한 행사무대에 못지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모교 최영욱 학장은 약학대학 개교 50주년을 '초일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명문사학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알찬 교육과 능동적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전 동문의 적극적인 호





응 아래 진행되고 있는 약학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의 의의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시 한번 약속하는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자리를 빛내기 위해 어렵게 참석한 김희수 이사장은 개교 50주년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교수와 학생들이 더욱 연구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박명수 총장은 중앙대학교 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 약학대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다시 한번 천명했으며,

서청원 동창회장은 약대야 말로 우리 중앙대학교의 '심장'에 해당된다는 말로 행사장에 참석한 동문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임상목 동문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교 교수들의 열정을 높이 치하하면서 최신 시설의 약학관 신축과 유능한 교수진의 확보 및 시대변화에 걸맞는 구조개편이라는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발전기금 조성사업회 동문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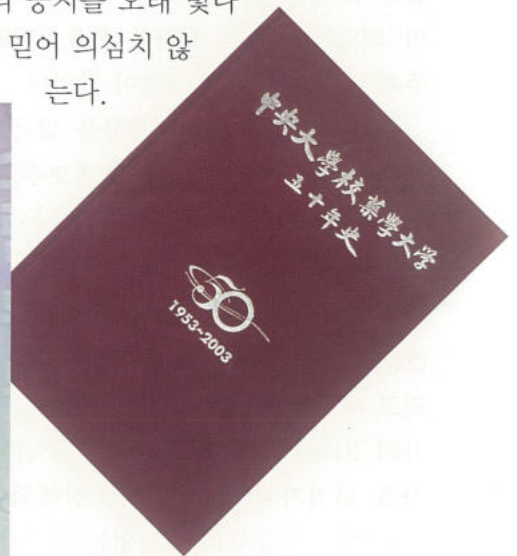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연혁보고에서는 1953년 부산 송도의 임시교사에서 시작하여 영신관 시대를 거쳐 파이프홀이 약대의 본산으로 자리잡는 과정에 이어 최신 시설의 약학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에 이

르기까지의 적나라한 역사를 동영상으로 특별제작하여 선보임으로써 참석한 동문들의 감회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찬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늘의 찬란한 역사를 이룩하는데 잊어버려서는 안될 동문들에 대한 시상의 시간 역시 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순간이 되었다. 초창기 약대의 기틀을 잡아주신 양형호 교수에게 총장공로패가, 직전 회장으로 관련 행사의 초기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력을 불어넣은 유영후 고문(7회)에게 학장공로패가, 그리고 우리 5천여 동문들의 만행으로 언제나 회를 지켜주신 김기홍 고문(1회), 김순일 고문(1회)과 미주에서 특별히 참석하신 송문영 고문(1회)에게 동문회장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전기금 조성사업 등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여하는데 전 동문들의 귀감이 된 김용옥 동문(3회), 임성기 이사(6회) 및 방순환 동문(10회)에게 자랑스런 동문의 영광스런 칭호가 부여됨으로써 참석한 전 동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1년여 집필과정을 거치며 그간 흩어지고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던 귀중한 사료들과 가치있는 사연들을 집대성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의 발간이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하고 동문들에게 봉정하는 시간은 자칫 화려한 행사의 열기 속에 파묻힐 수도 있는 행사의 의미와 참뜻을 기리는 그야말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다른 어떤 기념품보다 동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며 모교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가슴 가득 담아 약학인의 긍지를 오래 빛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I. 약사제도의 현황과 미래

## II. 21세기 생명의학 연구의 패러다임과 현대약학의 진보



모교 최영욱 학장(24회)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개교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속의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로이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여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8회)은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대한약사회가 공동주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학계와 약사회가 공동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 가지 전형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1부는 모교 심상수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의 '의약분업 시대의 약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의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모교 임철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미국 뉴저지주립 럿거스대 약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동철 교수(23회)의 '급변하는 의료환경하 성공적인 약국경영 전략'을 필두로 모교 겸임교수이자 온누리약국체인을 대표하고 있는 박종화 박사(23회)의 '시장개방과 법인화시대의 약국경영',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장준식 박사의 '21세기 약무행정의 비전과 전략'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가며 열정적으로 진행되어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동문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모교 김홍진 교수(22회)가 진행을 맡은 1부에서는 충남약대 석대은 교수(15회)의 'HDL과 연관된 항산화효소 paraoxonase 1의 산화적 불활성화 및 oleoylated lipid에 의한 보호작용', 이화학대 김대기 교수의 '선택적 PDE5 저해제로서 새로운 pyrrolo[3,2-d]pyrimidine-4-one 유도체의 설계, 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 약대 Douglas Kinghorn 교수의 '식물자원으로부터의 의약품 개발에 관한 이론적 전망'에 관한 열띤 강의가 이어졌다.

김미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Yusuf Hannun 교수의 '생체활성 sphingolipid 망의 중추로서 ceramide', 미국 NIH 국립 알코올남용 및 알코올중독증 연구소 송병준 박사의 '기초연구를 통한 치료학적 접근: 알코올 및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장기 손상의 기전', 역시 미국 NIH 국립 암연구소 김성광 박사의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있어서의 항암제 개발자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3부에서는 모교 염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국 템플대 의대 서병세 교수(6회)의 '항균제 내성과 새로운 항생제', 모교 손의동 교수(22회)의 '식도 및 하부식도괄약근 운동기능장애: 세포내 신호전달', 그리고 이민원 교수(25회)의 'COX-2 및 iNOS 저해활성에 대한 생체기능성 천연물질' 발표를 끝으로 이틀간에 걸친 심포지엄의 막을 내렸다.



동문회소식 **제33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 경 제33회 모교의 날 기념 동문 체육대회

축

일시 : 2003년 10월 12일

장소 : 중앙대부속중학교 운동장

## 제 33회 모교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및 '흠겨밍데이'

- 화합과 사랑과 봉사와 우정의 장

▶ 일시 : 2003년 10월 12일(일요일)

▶ 장소 : 중앙대부속중학교 운동장



### 팀 구성

화합팀(녹색) : 수원, 구로, 금천, 용인, 성북, 송파, 종로, 마포, 중랑, 광명, 강원

사랑팀(청색) : 인천, 강서, 양천, 시흥, 은평, 중구, 강동, 송북, 대전, 고양, 용산

봉사팀(적색) : 안산, 성동, 광진, 서초, 강남, 관악, 평택, 서대문, 전북, 부산, 제주

우정팀(노랑) : 안양, 도봉, 강북, 성남, 동작, 노원, 동대문, 영등포, 부천, 대구, 천안

개교 50주년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비 올 확률 20%의 일기예보! 그러나 행사차질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부터 천동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던 작년 행사를 아무 차질없이 진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기 때문이리라. 이런 느긋함에 기가 질렸음인지 이른 아침, 오히려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준비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막내로 총무단에 합류한 안산시약사회 김승재 회장(24회)이 제일 먼저 운동장에 나와서 준비를 하는 열의를 보이는 가운데 임상목 회

장(8회)과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진행을 책임진 김경오 총무(19회)가 일찌감치 운동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역시 언제나이듯 모교 최영욱 학장(24회)과 황완균 학부장(26회)의 진두지휘로 행정실과 학생회 임원들이 며칠간의 계속된 행사에 피로함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땀을 쏟고 있었다.

강우모(18회) 수원지부 회장의 인솔로 단체 버스로 도착한 수원지부를 필두로 서서히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자 여동문회 박찬희 회장(11회)과 김미담 총무(19회), 그리고 강옥희 전회장(12회)과 이경옥





전총무(19회)의 손길이 부  
산해지며 일찍부터 서두른  
동문들에게 시장기를 메울  
떡이며 음료와 차를 대접하기  
에 여념이 없었다. 황공룡 편  
집위원장(11회), 서국진 전총  
무(13회), 김구 약사공론 부주  
간(12회)의 모습도 반갑게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찍부터 반가운 손님  
이 찾아와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어 눈길을 끌었는데, 다름  
아닌 미국 LA에 거주하는 조  
영만(3회)·이정자(7회) 부부  
동문이 약대발전기금 50만원  
을 기탁하기 위해 운동장을 직  
접 찾은 것이었다. 73년 도미  
후 지금은 연방정부에서 지원  
하는 펜실베니아 재향군인병  
원 스텝약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후배 사랑의 마음을 담은 부부동문의 정성과  
함께 LA거주 3회 동문들(강병희, 강태원, 노형식,  
이일수, 이종영, 송중용, 조영만)의 발전기금 50만  
원을 별도로 임상목 회장에게 전달하여 참석한 동  
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미국 템플대 서병세 교수(6회)도 자리를 같이 하  
여 변함없는 후배사랑의 깊은 뜻을 보여 주었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10시 30분 김경오 총무의  
사회로 한마음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임상목 회장  
은 개회사를 통해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바  
탕 어울림을 통해 우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장이 훗  
날 즐거운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는 덕  
담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늘 행사에 참가  
한 막내인 이도성 동문(41회)이 선수선서를 함으로



써 화합의 동문 체육대  
회의 의미를 한껏 높여  
주었다.

행사는 지부별 선의의 경  
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 왔  
던 이전과 달리 전국 지부를  
골고루 섞어서 화합(녹색)과  
사랑(청색)과 봉사(적색)와  
우정(노랑)이라는 큰 틀 속  
에 녹아들게 하자는 취지를  
설명하여 큰 박수를 받았으  
며, 각 팀을 색깔로 구분하  
여 체육대회 안내 팸플릿부  
터 팀 플래카드 등에 이르기  
까지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  
는 성의를 보여 역시 큰 호  
응을 받았다.

늘 일찍부터 자리를 지켜  
주시던 김기홍 고문(1회)이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  
려져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으며, 오  
세형(3회), 최종묵(3회), 유영후(7회) 고문이 든든  
하게 자리를 지켜주셨고, 김일혁, 김종갑, 허인화  
(4회) 명예교수께서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자랑  
하셨다. 임철부(6회) 의약식품대학원장을 필두로  
염정록, 김창중(11회), 손의동(22회), 이도익(23  
회), 이민원(25회), 심상수(26회), 김하형(31회),  
천영진 교수에 이어 이번에 새로 교수진에 합류한  
황광우(35회), 한상범 교수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교수진이 얼굴을 보이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타 대학에서 우리 행사를 축하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 서울약대의 김희중 전  
대약회장과 신영호 총무담당 부회장이 우정 시간  
을 내어 인사를 했으며, 성대약대의 이범구 회장과







덕성약대의 정연택 회장이 직접 금일봉을 전달하여 자리를 빛냈고, 숙명약대의 조순분 회장이 축하 화환으로 분위기를 높여 주었다.

아마 화합의 체육대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종목이 집단축구가 아니었나 싶다. 가족을 포함한 25명씩의 각 팀 선수에 골키퍼가 3명씩이고 럭비공 4개, 축구공 1개가 동시에 운동장을 난무하는 모습은 일시에 나이와 사회적 신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같은 동문이라는 공동운명체 사이의 축제 분위기를 삼시간에 연출하는 힘을 발휘했다. 정명진 총무(18회)의 멋진 헛발질이 백미로 장식된 이번 집단축구의 규칙은 '후배는 선배를 차면 안되지만 선배는 후배를 차도 된다'라니 그 반대라나! A팀이 B팀을 8:6으로 눌렀는데 어느 분회가 A팀이고 어느 지부가 B팀인지는 이미 큰 의미가 없었음을 참여한 모든 동문들이 증언하고 있다.

여동문들과 이번엔 특별히 같이 참여한 자녀들을 위한 발야구 역시 시종일관 함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주 해보지 않아 규칙도 몸놀림도 엉성한 것을 팽팽한 승부욕과 몸을 던지는 참여열기로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었다. 엄계숙 동문(13회)의 멋진 슬라이딩은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명장면을 연출하며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 올렸다.



모교교수들과 회장단의 즉석 축구시합 역시 이번 모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멋진 장면을 연출했는데, 가볍게 회장단이 이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최영욱 학장의 선제골을 중심으로 교수진이 2:1로 승리하여 만만치 않은 파워를 과시했다. 새로 얼굴을 보인 젊은 피 황광우 교수와 한상범 교수의 몸을 사리지 않는 파이팅이 돋보였으며, 작년에 놀라운 체력을 과시한 홍홍만 동문(1회)이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후배들의 찬사를 다시 한번

이 끌어냈는데, 어렵게 얻은 페널티 킥을 멋지게(?) 실축하여 끈끈한 후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들었다.

막간을 이용해서 벌어진 알까기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액수를 밝힐 수 없는 거액을 걸고 임상목 회장과 임철부 교

수의 한판이 양보없이 진행되어 거의 모든 알이 반상에서 사라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임상목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속전속결의 알까기 특성을 무시한 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치열한 신경전 속에 '필요하면 재시합을 봐야 한다'는 어느 선배의 너스레가 과히 밍지 않게 들렸음을 요즘 후배들이 그 의미를 알기나 할까.

전 가족이 참여한 OX퀴즈도 노련한 진행팀의 리드로 시종 웃음과 긴장을 잃지 않고 진행이 되었는데다. 마지막 남은 4명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정했는데, 실제 승패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선물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프로 진행자의 노련함을 한껏 뽐내며 모임의 의미를 백퍼센트 확인하게 해주었다.



골프 1등 안양지부



2등 수원지부



3등 안산지부







합동 지네발 릴레이 등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특히 같이 참여한 동문 자녀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향후 모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했다. 3시경부터 간간히 비가 내려 약간의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오히려 분위기를 집중시키는 등 차분한 진행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승화되었다고나 할까.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미리 진행된 골프에서는 안양지부가 1위를, 수원지부와 안산지부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전통의 명가라는 명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회 중반 무렵에 이번 대약회장에 동문회의 추대를 받은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13회)이 제주도 행사를 마치고 쉴 틈 없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동문들은 따뜻한 박수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진행함으로써 시간도 단축시키고 행사장 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의 손실을 없앤 진행도 호평을 받았다. '혹석골의 옛맛'이라는 주제로 바비큐와 순대를 선보인 메뉴는 소주병이 비는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으며, 자녀들을 위해 통닭을 따로 준비하는 주최측의 세심함이 돋보이기도 했다. 비단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흥이 오른 선배들의 열창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어김없이 행운권 추첨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폭소가 만발했다. 안산지부의 모약국이 행운권을 무더기로 투입한 협의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참여한 전 동문이 거의 하나씩은 상



품을 받은 것도 너그러운 분위기에 일조를 했다는 평.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둘 자리를 뜰 시간이 되자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동문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부를 시상하기로 하여 단합의 의미를 강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해마다 참여하는 동문들의 숫자나 열기에서 누구의 의심도 없이 강한 조직력을 과시하던 안산지부가 1등을 차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며, 강서·양천지부가 2등을, 그리고 수원지부가 3등을 차지하여 두둑한 상금으로 뒷풀이를 기약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저녁 어스름이 서서히 덮어오는 시간까지 회장단과 보직교수, 무엇보다 행정실 직원들과 며칠째 선배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로기 상태가 된 학생회 임원들이 마지막 남은 쓰레기 하나까지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범약계 행사인 '약의 날'과 겹치는 바람에 각급 약사회 임원을 맡고 있는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으나, 화합과 단합을 통한 동문회의 결속을 다진다는 행사의 의미는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한 동문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채워주었다는 평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개교 50주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체육대회와 홈커밍데이의 스포트라이트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허근회 (부회장, 8회)

## 약국도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모발전문약국(www.BeautyGallery.co.kr)을 개업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탈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탈모에 관한 최신 치료법을 찾아 민간요법, 약물요법, 기기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접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탈모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탈모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어떤 상품을 사용해야 할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무척 난감해 하고 있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 충고해 주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업체의 말을 곧이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가장 가까우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약사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탈모관련 상품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탈모를 해결할 방법을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이러한 방법을 공유하고 나아가 더 좋은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좋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모발연구회도 발족하였다. 연구회를 통해 탈모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면 탈모에 관한 최신 정보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고, 탈모치료에 대한 전문지식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매주 화요일 늦은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약사들을 대상으로 탈모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또한 4,000억원을 넘어선 탈모시장 규모, 450만명이 넘는 탈모인구, 젊은층과 여성들에게까지 탈모가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약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한다면 이는 분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탈모 특화코너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국들이 늘고 있고, 이는 곧 매출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 동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모발연구회와 같은 특화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우리 약국들이 전문성을 갖는 특화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특화된 서비스가 널리 정착되는데 나의 모든 정열을 쏟고 싶다.

누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동문들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동문들의 고견을 바란다.





# 의약협업, 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8회)

- 중앙약대 졸업
- 고려의대 졸업
- 약사/의학박사
- 일반외과 전문의
- 현 오창준의원 원장

요즘에야 자기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걷는 전문인들을 만나는 것이 하 이상할 일도 없는 세상이라 뭐 굳이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사이며 동시에 의사인 우리 형제의 이야기가 그런 와중에도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이런 지면을 통하여 오랜만에 동문

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인 저 오창준은 중앙약대를 1964년에 졸업했으니 졸업기수로 8회에 해당되며, 약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삼진제약의 조의환 회장이나 글로벌데이몬팜의 김돈기 회장이며, 참 이번에 총동문회를 맡은 임상묵 회장 등이 동기입니다.

약대 재학시에는 생약반에 가입하여 주말이면 약용식물 채집을 다니며 고생도 하고 즐거움도 많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덕룡 교수님, 김일혁 교수님의 자상한 지도를 지금도 잊지 못하며, 특히 애석하게 고인이 되신 도상학 교수님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며 알고 지내던 인연으로 약대에 진학하게 된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한번은 도교수님 지도로 울릉도로 채집을 가서 성인봉엘 올랐는데,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고 장시간 헤매다가 "여기가 섬이니 무조건 바다를 향해 내려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지팡이 삼아 고생하며 하산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남들 다 하는 골프를 치지 않고 등산으로 체력을 다지고 있으니 약대와 생약반과는 이런저

런 이유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어떻게 의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국을 1년 정도 경영해 보았습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학문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할까요, 공부할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약대 6년제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절감했다고나 할까요. 약대 졸업 후 깊은 지견없이 바로 뛰어든 약국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다시 책을 잡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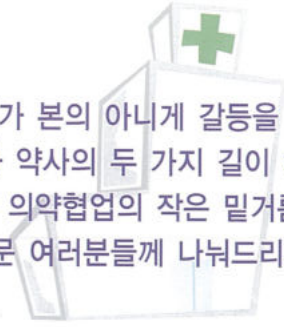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후배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랄 것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컨센서스 없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던 의약분업이 당연히 의약협업으로 승화되어야 함은 물리칠 수 없는 대세이자 지극히 옳은 방향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최적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

## ▼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2002)





의사와 약사가 본의 아니게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절,  
그러나 숙명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두 가지 길이 하나로 만나는 접점에서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진정한 의약협업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동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다는 당위론에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의사들이 의대 6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적 지식을 임상현장의 생생한 도구로 접목시키는 오랜 수련과정과 비교한다면 약대 4년은 어떤 이유에서건 심화학습을 하기에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그 만큼의 연구와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봐도 약대는 장점이 많습니다. 기초뿐만 아니라 임상과 관련된 분야도 적지 않고, 특히 분석이나 합성까지 다양한 과목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박겉핥기로 끝나서는 좀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한약만 하더라도 성분분석과 같은 화학적인 기초지식에서 임상응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대만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목소리만으로 주장을 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후배들에게 강조하거니와 절대 손에서 책을 놓아서서는 안됩니다. 한국적인 의약분업의 현실이 언제까지 고착된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질병 치료의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요즘 의사로서의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해도 큰 실례는 아니겠지요.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의 급변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은 이제 새삼스런 일도 아닌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예컨대 제가 외과의사이니 그야말로 어떻게든 수술을 잘 하는데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수술 이외의 행정적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술 결과가 얼마나 좋은 지가 아니라 언제 수술을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났으며 그 와중에 행한 처치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했으며 등등등. 행정당국에서 일부러 의사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 하면 삭감이요, DRG는 어떻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의료보호환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불쑥불쑥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다소 길어졌습니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정도 개업을 했다가 83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위생병원에서 일반외과과장으로 봉직했으며, 93년도에 다시 제 이름을 걸고 개업을 하여



오 창 학 (10회)

- 중앙약대 졸업
- 중앙의대 졸업
- 약사/의학박사
- 성형외과 전문의
- 현 오창학성형외과의원 원장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대 졸업 후 의대로 방향을 전환할 때 당시 의사로 개업하고 있던 매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형 중의 한분이 또한 우리 중앙약대의 선배가 되시고, 딸이 미국에서 치대를, 아들이 경희의대에 다니고 있고, 조카며느리 역시 우리 약대 후배가 되니 그야말로 의약협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의사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좀 들어서 갔던 연유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놈 저놈하는 분위기는 지금도 약대 친구들에게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겠지요.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약대친구들과의 우정이 각박한 생활에 작은 활력소가 되고 있음은 저만이 가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으나 안식일교회에 오래 적을 두고 있으며, 지금은 장로로서 신앙생활과 사회적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시다만, 사실은 더 자질이 뛰어난 동생 오창학 원장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6년 약대를 졸업하고(환인제약의 박호일 부회장이며 구주제약의 유정사 사장들과 약대 10회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생약반에서 활동을 하던 인연으로 한덕룡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유한양행 연구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지요. 제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동생 역시 아무래도 무언가 모자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다시 의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앙대에 의대가 생긴 첫해에 본과로 편입할 수 있었으니 말하자면 중앙의대 1회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들의 원하는 바를 위해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나이든 지금에 헤아려 봐

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런 편견없이 믿고 지원해 줄 자신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대 필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후 78년도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생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니(성형외과전문의 78호) 생각이 많이 앞서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본인은 당시의 대 동기생들에 비해 '노털'의 반열에서 노닐다 소위 메이저과라고 할 수 있는 '내외소산'(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을 피해 당직이 없는 과를 택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오늘의 현실이 성형외과가 가장 선호되는 과가 되었으니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요.



동생 역시 안식일교회 장로로서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딸이 강원의대를, 아들 역시 자신의 전공을 마친 다음 새롭게 뜻을 두고 올지 의대에 편입해서 의사를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닳은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 우리 형제가 자리잡고 있네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의대로 진학해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으며(그것도 둘 다 손떨리면 그만 두어야 한다는 외과입니다), 학창시절 생약반에서 활동하던 인연으로 지금도 육지거리 주고받을 수 있는 약대 동기들과 교류하고 있고, 안식일 교회에서 장로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니 형제로서의 인연이 이보다 더 질긴 관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본의 아니게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절, 그러나 숙명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두 가지 길이 하나로 만나는 접점에서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진정한 의약협업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동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 8월 26일 이대운(10회) 정년퇴임식 : 파크뷰웨딩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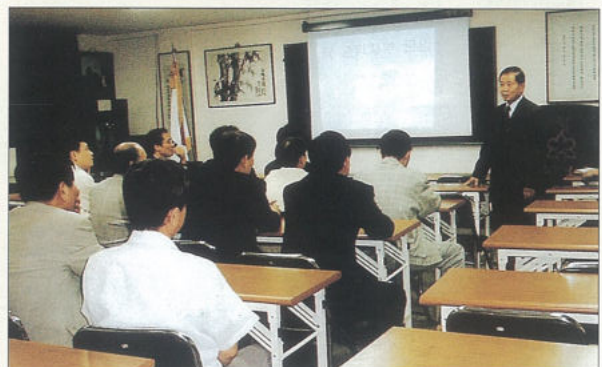
• 9월 19일 흑중회 : 한일관



• 8월 30일 시·도지부회장모임 : 낙천정



• 9월 30일 관악지부모임



• 9월 25일 종로구지부모임

• 9월 27일 이사회의 : 서교호텔 5시

• 9월 29일 골프대회 : 88CC

• 10월 2일 안산지부모임

• 10월 11일 도봉·강북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 신상직(17회)

• 10월 18일 금천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 이호선(20회)

• 10월 23일 중랑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 박상용(22회)

• 10월 25일 관악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 박석동(15회)

• 10월 28일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중앙인의 밤"  
: 63빌딩 국제회의실

• 10월 30일 대한약사회 문재빈(13회) 후보 발대식  
: 동문회관

• 11월 1일 27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 메리어트호텔 미팅룸

결혼

• 8월 30일 고두흔(2회) 이사 자녀 결혼

• 9월 20일 황공용(11회) 부회장 자녀 결혼

• 9월 21일 정덕호(11회) 부회장 자녀 결혼

• 10월 12일 김종성(13회) 이사 자녀 결혼

부음

• 8월 27일 오규진(16회) 이사 별세

• 9월 6일 문재빈(13회) 이사 모친상

• 9월 7일 유정사(10회) 부회장 빙모상

• 10월 2일 오희영(9회) 이사 별세

인사

• 10월 1일 최용선(7회) 한영제약 회장 취임

이전

• 10월 23일 정명진(18회) 사무실 이전



# “좋은 ‘재단 인수자’ 있으면 자리에 연연치 않겠다”

## 새로운 모교 발전 계기 열려



김희수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강영우 재단 상임이사장과 이상윤 법인처장 등을 대동하고 서청원 동창회장과 동창회 상임고문단과의 회동에서 자신은 현재 “더 이상 중앙대학교를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해, 계속 이사장 자리를 집착하는 것은 영원해야 할 중앙대학교에 누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면서, “중앙대학교 발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해 달라”고 말했다.

서청원 동창회장은 이사장이 동석한 지난 10월 8일 약대 개교 50주년 기념식과 10월 10일 모교 개교 85주년 기념식장에서 이사장의 이같은 내용을 공표하고, 김희수 이사장이 이러한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중앙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일 수 있는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20만 동문과 중앙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 2003년 ‘중앙인의 밤’ 화려하게 열려

10월 28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2003 중앙인의 밤’이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열리는 올해 ‘중앙인의 밤’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디너쇼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서청원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박명수 총장의 축사, 그리고 올해의 자랑스런 중앙인으로 뽑힌 최원표(경제 15) 동문, 박정인(경영 18) 동문, 고석만(연영 23) 동문, 민경식(법학 25) 동문 등 4명에게 기념패와 금메달 등이 수여되었다.

2부 디너쇼에서는 태진아, 설운도 등의 인기 가수 특별출연과 박근형, 서인석, 주현미, 유지인, 배중옥 등 예년에 나오지 않았던 동문들이 대거 출연하였으며 윤문식, 최주봉, 유인촌, 김성녀, 선우용녀 등의 인기 동문 연예인 다수도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 73학번 홈커밍데이 개최

흑석골에서 진정한 홈커밍이 있었다.

모교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입학 30주년이 되는 73학번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청원 동창회장과 박명수 총장, 그리고 350여명의 73학번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1부행사에 이어 2부행사에는 30년전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 재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3부 만찬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후에도 30년만의 만남이 아쉬워 흑석동 캠퍼스주변에서는 별도의 모임들을 갖는 등 오랜만에 흑석골에서는 진정한 홈커밍이 있었다.

##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

모교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한 12위

중앙일보가 발표한 2003학년도 전국대학종합대학 평가에서 모교가 지난해보다 4단계 뛰어오르며 12위를 마크했다. 학문 분야 평가에서는 중앙

대 연극학과, 영화학과가 각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명실 공히 전국 최고학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극학과의 경우 ▲교수 ▲교육여건 ▲학생 및 졸업생 ▲재정 및 시설 등 4개 부문의 평가지표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영화학과의 경우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3 중앙일보 전국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사회학과와 간호학과가 교수연구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회학과의 경우, 설립되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수연구부문 4위라는 강세를 보이며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의 경우 지난해처럼 5백점을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부문은 크게 ▲교육여건, 재정(2백점) ▲교수연구(1백 80점) ▲평판도(80점) ▲개선도(40점)등 4개로 나뉜다. 평가지표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이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인데 이 부문에서 가장 낮은 25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문 순위는 교수연구 15위, 평판도 및 개선도 공동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 만평

“必” 합격!!! 후보자자격심사



“질서는 아름답다”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동문기금

# 발전기금 조성 내역

총 13억 2천 2백만원 (2003. 11. 5 현재)

## 교 수 총 12,400만원

〈교내〉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타교〉 오유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 학 생 총 5,350만원

### 동문회장단 총 19,000만원

유영후(1,000), 조의환(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임상목(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흥(300)

### 단체기부 총 950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학부모 및 기타 총 950만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 개인·부부동문 총 92,60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3회〉 김석자(3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자(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환(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재(30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인고길(300),  
 임종홍(300), 정재일(5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찬수(3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000), 이조열(300),  
 임상목(500), 정재용(300), 조의환(1,000), 한석원(500),  
 허근희(300)  
 〈9회〉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홍금자·남기탁 부부(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500), 조성복·홍순경 부부(500)
-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민석(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500)
- 〈17회〉 김인형(5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 〈20회〉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명내(300), 윤춘수(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이신규(300), 임경원·이현숙 부부(1,0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김홍진(500), 손의동(5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전일오(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오황영(4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유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5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중래(500), 최영욱(1,000), 최재윤·김윤경 부부(500), 함삼균(500),

- 홍용기(300), 황규진(300), 오동근(300), 함한성(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5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5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오영돈(300)
- 〈28회〉,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 부부(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숙희·이창훈 부부(500), 이해룡(300), 임채욱(5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 철(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이현숙·임경원 부부(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곽정근(300), 권준한(300)
-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300),
-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2003년 8월 20일 ~ 11월 7일)

##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8회 : 임상목, 조의환, 김돈기, 장진유, 허근희, 장승자
- ▷ 9회 : 권혁구, 이규진
- ▷ 10회 : 박호일, 유정사
- ▷ 11회 : 정덕호, 황공용, 박찬희

## 이사회비(연12만원)

- ▷ 1회 : 홍흥만, 손동헌
- ▷ 2회 : 고두흔, 지선훈, 정덕화
- ▷ 3회 : 최종목, 박종순, 안재민, 노인배, 성열호, 선우연
- ▷ 4회 : 김현용, 박노일, 천홍기
- ▷ 5회 : 김중무, 김영배
- ▷ 6회 : 안병한, 유상열, 김경희, 김동열
- ▷ 7회 : 유윤자, 김영덕, 전승규, 임종홍, 정재일, 유영후, 최용선
- ▷ 8회 : 이백천, 박번일, 김홍자, 김형이, 문옥자
- ▷ 9회 : 이근배, 황태선
- ▷ 10회 : 이양원
- ▷ 11회 : 민대식, 박신규, 김창중, 김미자
- ▷ 12회 : 이효훈, 우준하
- ▷ 13회 : 이종각, 최창엽, 문재빈, 김병현
- ▷ 14회 : 안태화, 지상배
- ▷ 15회 : 조찬휘, 김용의
- ▷ 16회 : 권령복, 강명채, 이상규
- ▷ 17회 : 신상직, 이동우, 김인형
- ▷ 20회 : 이호선
- ▷ 21회 : 김수배
- ▷ 22회 : 강희운
- ▷ 24회 : 이형수, 정종근, 함삼균, 원경선, 심영철, 이범도, 최명배, 윤규형
- ▷ 25회 : 조석현
- ▷ 26회 : 진희역, 김정수
- ▷ 27회 : 오홍설
- ▷ 28회 : 김희식
- ▷ 30회 : 도민숙, 고석일, 최병원, 김성배, 김광식

## 일반회비현황(연2만원)

- 1회 : 허필준
- 2회 : 홍순각, 박명한, 김좌상, 김선동, 황인규, 한성순
- 3회 : 임중환, 심한섭, 임성혁, 조래옥, 정래수
- 4회 : 이영아, 이경석, 홍범표, 최종화
- 5회 : 손규산, 민홍식, 임맹순, 김원진, 조복휘, 강희복
- 6회 : 김영재, 신의명, 홍병석, 정진식, 홍성호, 유복상, 전희태, 권종악, 조종래, 이준장, 박배원, 이풍기, 이종호, 이원걸, 심현수, 이태호, 최성천
- 7회 : 조익중, 인고길, 윤태정, 정영홍, 김영일, 이상현, 송정애, 박래식, 이홍수, 곽상빈, 박대규
- 8회 : 김기중, 정재용, 이숙자, 임영숙, 최병준, 임성빈, 유재우, 김원희, 유병호, 최문정, 강윤구, 서동섭, 김범수, 김희선, 손영복, 이영복, 신현우, 엄규중, 권태수, 오창준
- 9회 : 김영부, 박장우, 권오성, 신우식, 손승언, 이규형, 이경주, 박장규, 김학진, 장성현, 주신자, 김영창
- 10회 : 방순환, 이장열, 김광일, 홍성민, 정영기, 이원일, 박광일
- 11회 : 박승보, 김재곤, 김철홍, 양계창, 차영진, 안홍신, 하만웅, 이의공, 이석태, 강일성, 고승하, 김정길, 백갑환, 신명승, 구자역, 김기승
- 12회 : 정기순, 박광자, 김두학, 민명임, 이정희, 김주애, 최복자, 황순오, 이만오, 오수치, 민명님, 엄흥식, 전희자, 김광혁, 김대건, 송춘식
- 13회 : 최승기, 윤해선, 김신미, 유용상, 안상희, 김인호, 강태주, 손찬규, 설은규, 이삼우
- 14회 : 신채봉, 이용성, 김경수, 우영철, 안해봉, 김인덕, 김현숙, 최종택, 현혜경, 전봉선, 이관희, 유효성, 전영표, 홍성철
- 15회 : 박명배, 나인준, 박태효, 김태영, 이명숙, 정현우, 왕수현
- 16회 : 윤영위, 이규주, 박창호
- 17회 : 선우영환, 안병조, 박재식
- 18회 : 여운숙, 유덕희, 남애숙, 최정순, 박원래
- 19회 : 남윤수, 김상좌, 이남석, 최철희, 김종달



- 20회 : 조진환, 윤춘수, 정동천, 이종훈, 방금숙, 안연준, 지태현, 임경원, 방재환, 구장림, 차재근, 정금숙, 정택일, 이영숙, 최인걸, 남덕자
- 21회 : 송진용, 이두순, 최순중, 이진경, 이만형, 박후신, 최병철, 박제천, 안병헌, 어경남
- 22회 : 심재호, 한상훈, 장용운, 전일수, 이정석, 김철수, 김태일, 천경호
- 23회 : 최경선, 안봉국, 김수중, 이건주, 은성기, 조병학, 오항록, 한용문, 임창영, 이영림, 박희용
- 24회 : 홍용기, 양성철, 박은원, 최금순, 장순경, 김재천, 조중연, 김기준, 정상수
- 25회 : 손현운, 김완기, 위성건, 원성제, 이명금, 전경숙, 김선열
- 26회 : 정태형, 신현동, 김유현, 박주돈, 김형남, 윤용혁, 정기춘, 최민규, 조필연, 조병호, 이근주, 이영준, 김형배, 최교석, 최종배
- 27회 : 안희영, 고영주, 이병일, 신길득, 김정호, 양건모, 김재식, 오영돈, 현기원
- 28회 : 남궁용, 윤미원, 조상오, 오용식, 정현숙, 임춘식, 이용해
- 29회 : 이경우, 강철선, 한일룡, 강선영, 유인석, 강대용
- 30회 : 전두한, 김연하, 윤기숙, 이경숙, 김형수, 조덕희, 최현희, 곽필신, 강현주, 어은주, 서정봉, 김양수, 김선경
- 31회 : 구상미, 정혜경, 유문숙
- 32회 : 채영주, 김재섭, 도곤희, 최문석, 장재현, 김용미, 박래경, 김미숙
- 33회 : 윤선찬
- 34회 : 박상권, 이영은, 김종국, 윤덕수
- 35회 : 서유정, 김성훈, 박은주
- 36회 : 김미향, 유동명, 임기민, 방극상
- 37회 : 황선관, 신희관
- 38회 : 정필연, 임규리
- 39회 : 길봉진
- 42회 : 최재희, 민명기
- 43회 : 김일화
- 44회 : 김수길
- 45회 : 심미순, 박수현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약동문화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 장학금 수여식

9월 17일 모교 교수세미나실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부1	정 혜 정	3.92
	700,000	약학부1	김 인 철	3.88
	700,000	약학2	고 효 상	4.04
	700,000	약학2	김 유 리	4.07
	700,000	약학3	김 윤 진	3.90
	700,000	약학3	허 정 선	3.91
	700,000	제약3	한 병 훈	3.85
	700,000	약학4	예 현 정	3.83
	700,000	제약4	정 미 경	3.83
	700,000	제약4	조 승 곤	3.80
영등포동문회 (1,000,000)	500,000	제약3	오 윤 선	3.80
	500,000	약학4	김 선 미	3.54
부 산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3	김 진 희	3.80
	500,000	제약4	박 선 영	3.78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부1	전 지 현	3.90
	500,000	제약2	박 영 미	4.02
제20회동기회 (3,000,000)	1,000,000	제약2	이 소 영	4.07
	1,000,000	약학3	정 통 한	3.92
	1,000,000	제약4	이 한 승	3.86
한미약품(주) (3,126,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b>합 계 : 16,126,000</b>				



이번호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창학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와  
심포지움이 주제로 실렸는가 하면 직선제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동문들의 면면이 소개됐다.  
중앙약대 50년의 역사 속에 김명섭(5회), 한석원(8회) 동문이 각각 대한약사회장에 올랐는데,  
세번째 약사회 首長에 우리동문의 등정을 기대해 보며 14호를 보낸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 明

최초의 직선제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  
산적한 약사현안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기 위한 그 과정은 마치  
성자들의 고행과도 같은 것이다.  
일일이 표심을 다지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초들의 바램과 불만이  
무엇인가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데 송고한 직선제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일부 약사언론이 마치 선거전이  
과열되지 않을까봐 안달인 것 같다.  
“약한 아군보다 강한 적”이란 속담이  
있듯이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한  
민주의식을 꽃피우는 잔치 마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약사 만세!!”  
“중대 만세!!”

# 庸

Dog table before 5 minutes!  
세상 어디에나 개들의 천국입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시중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주인들 옆에서 '마음 놓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털 날리고 하더니,  
그래서 그건 저 세상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치부했더니  
어느새 세상 속으로 나와 바로 내 주변에서 활보 중입니다.  
모처럼 마음먹고 한강 고수부지 몇 발짝 걸을라치면 어김없이 잘 생기고  
귀티 흐르는 개들이 사방에 널려있고, 토요일 아침 오래 버려다  
남한산성이라도 오를라치면 거기조차 끔찍이도 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는 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사방이 '개판'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뻏싸, 심지어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조차 개로 보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헛소리나 짹짹대는 사람들,  
세상 바뀐 지 한참 되었는데 여전히 먹을 것 못 먹을 것 가리지 못하다가  
끝내 탈나는 사람들, 세상살이 하 어렵고 팍팍하다는 핑계로 도대체  
기본적인 예의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타고난 행운과 현재의 우월함과 넘쳐흐르는 능력을 과시하지 못해  
애쓰는 사람들... 아참, 아직까지 이 사회에 빌붙어 행세하는 노동귀족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우리네 약 냄새 나는 동네라고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군요.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정명진(18회), 김기명(18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 질병없는 건강한 새천년 한독약품이 열어갑니다



한독약품 본사

세계적인 생명공학그룹 헉스트와 롱프랑로라의 합병!  
이제 아벤티스와 한독약품이 세계적 제약회사로 우뚝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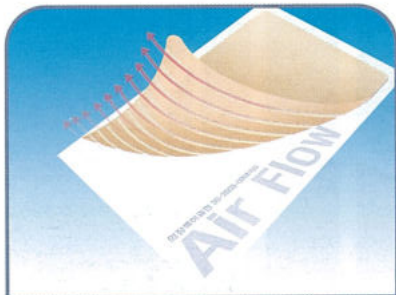
우수약품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한독약품 - 이제 한독약품은 세계제일의  
아벤티스 그룹의 일원으로 세계로 가는 길을 엽니다.  
한독약품의 변화와 도전 정신!

그것은 건강한 미래, 질병없는 세상을 위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 강하고 부드러운 - 케펜텍

빠르고 깊숙하게 침투하는 강한 약효로  
잘 낫지 않은 관절의 구석구석 통증까지  
신속하게 치료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의약품) 의장특허출원

- Air Flow (공기선)은 피부 호흡을 돕는 첨단 제조공법입니다.
  - 땀이나 수분배출을 도와줍니다.
  - 피부발적, 진무를 감소시킵니다.
  - 본래의 부착력과 피부상태를 유지 시켜줍니다.
- 토코페롤 함유
  -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합니다.



- 빠르다** 강한 약물을 신속하게 피부속으로 침투시켜 관절염에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 강하다** 신속하게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함으로써 관절염에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 부드럽다** 신축성이 우수한 고급 직포를 사용하여 팔꿈치나 무릎에도 잘 밀착되며 활동하기에 편합니다.



제일약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5-5  
TEL. 02-549-7451~65 www.jeilpharm.co.kr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머니즘을 통한 초일류 기업

전문경영인 시대를 여는 의약품계의 선두주자

삼진제약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기업정신의 바탕으로 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원

**삼진제약주식회사**

<http://www.samjinpharm.co.kr>





**중앙대학교의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